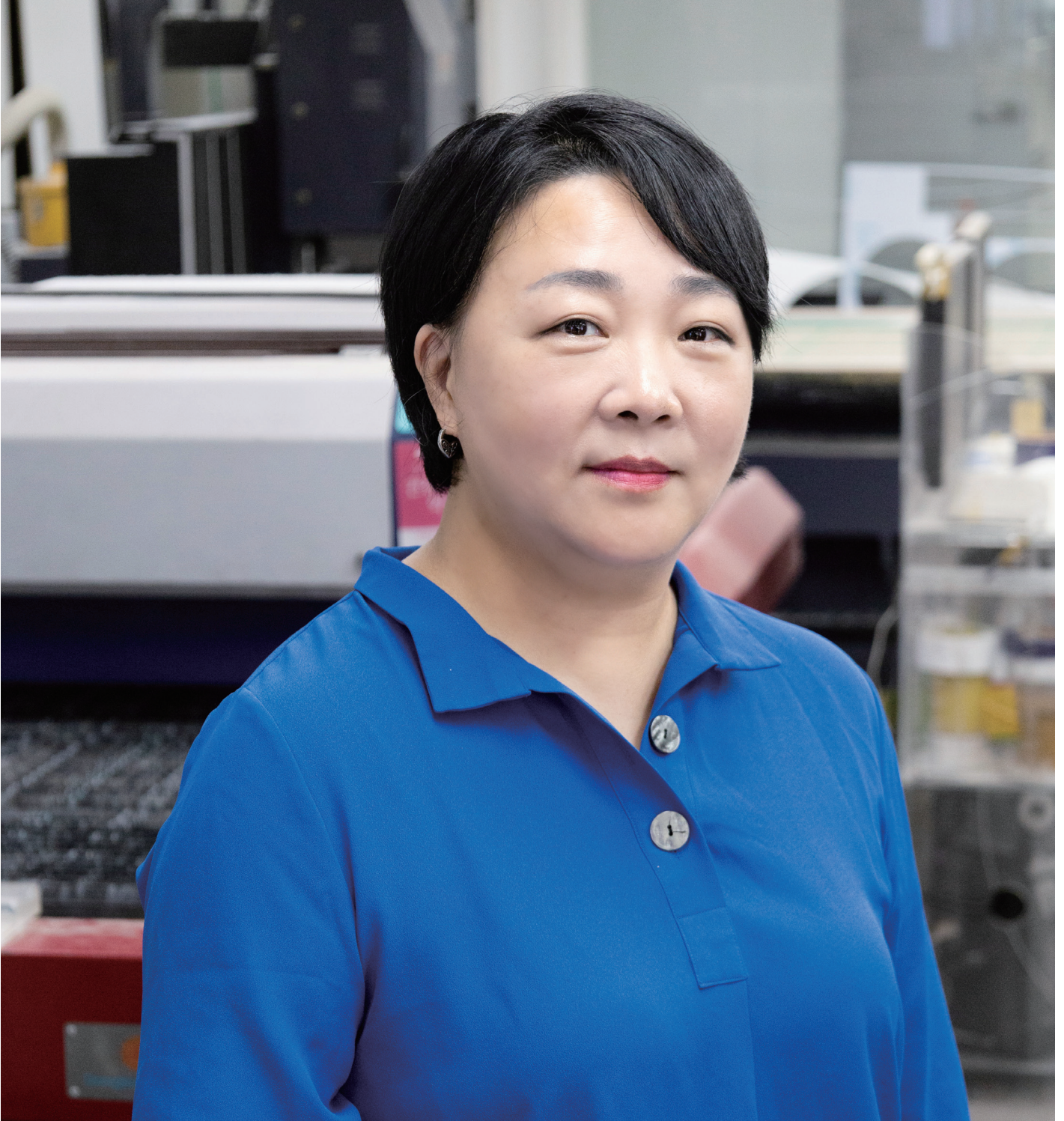


# 인쇄저널

Printing Journal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박선영 (주)태영플러스 대표이사

**이슈**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쇄물 편중 심해

**인터뷰** 박선영 (주)태영플러스 대표이사

08

2024 | Vol.441



#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초간편 주문배송



**T-verse,**  
간편함을 고객의 일상으로!  
그것이 가장 타라유통다운 생각

ORDER NOW

02-846-6001

b2b.tarapaper.com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9층

#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http://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노란우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채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기마다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http://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PRINT 2024

2024  
8.21 수  
~ 24 토

KINTEX  
제2전시장 7,8홀



Since 1978

**KIPES**

27th Korea International Printing Machinery and Equipment Show  
제27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label**

Korea Label Show  
한국레이블전시회

**Kpack**

Korea Packaging Show  
한국패키징전시회

**Kdigital print**

Korea Digital Print & Solution Show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textile**

Korea Textile Show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sign&ad**

Korea Sign & AD Show  
한국사인·광고전시회

주최

한국이앤엑스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www.kprint.kr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kprint@kprint.kr



12



18



25

발행일	2024년 8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김윤중
편집인	김병수
홍보미디어 위원회	위원장   서동숙 부위원장   류윤현 위원   강해성, 목영만, 채연화
기획제작	사업홍보팀   ☎ 02-333-8631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대로 140 (쌍림동 146-1)
디자인 제작	카오스넷그라   ☎ 02-2278-1577

## Contents

2024 | Vol.441 **08**

06	기고	행복의 기준 - 심홍열
08	이슈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쇄물 편중 심해 - 김병수
12	인터뷰	박선영 (주)태영플러스 대표이사
16	전시	미래를 프린팅하는 새로운 인쇄기술, K-PRINT 2024
18	이벤트	한국후지필름BI, 창립 50주년
20	건강	우울증
21	절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2	업계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li> <li>• 2024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li> <li>• 서울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 전달식</li> <li>• 서울인쇄조합 청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논의</li> <li>• 소녀 가정들이 보내준 편지 모음집 발간한 안태복 (주)디앤비애드 대표이사</li> <li>• 타라TPS, 우즈베키스탄 국정교과서 제작</li> <li>• 조합원사 등정</li> </ul>
25	포커스	(주)투데이아트, 콘텐츠 도코 2024 참가
26	여행	더 높은 곳에서 2층버스 시티투어





## 행복의 기준

심홍열 (주)스크린HD코리아 부장

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언젠가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57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고, 10점 만점에 5.9점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 행복점수가 낮을까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균 5점 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쇄업계 특성상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현장에서 타이프 한 낱기에 쫓기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며, 마음 편히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인쇄인들도 제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쇄 관련 장비와 솔루션을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 인쇄회사 사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인쇄회사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의 인쇄인들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나만의 실천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실천해보자! 입니다.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인간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마음의 근육이 약해져서 눈물도 많아지고, 쉽게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요즘 들어 부쩍 조금만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줄줄 흐르곤 합니다. 제 경우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솔로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는 가족들과 가끔적 많은 대화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사춘기 딸과 아들을 둔 저희 집에서도 솔직히 대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게임(보드게임, 젠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다음 대화를 시도해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식후에는 웬만하면 다 같이 산책을 하며 대화를 이어 나갑니다. 산책은 건강에도 좋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주 보며 나누기 서먹한 이야기들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걷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지거든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힘든 점, 아빠가 최근 느끼고 있는 고민이나 애로사항도 숨김 없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의외로 아내와 아이들이 공감해 주고, 때론 생각지도 못한 좋



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 설정과 성취입니다.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학창시절 맨 숙제이긴 했지만, 방학 때마다 계획표를 꼭 만들곤 했죠. 사회생활에서도 계획과 목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를 성취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과 공유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줄 일기로 하루를 정리해 보자! 입니다.

저는 자칭 세줄 일기 홍보대사인데요. 세줄 일기는 그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단 세 줄로 요약해서 쓰는 일기입니다. 뭘 써야 할지 잘 모를 때는 매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가 보낸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며, 정리하다 보면 오늘 하루는 정말 무의미하게 살았구나. 내일은 좀 더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앱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쓰는 가족 세줄 일기 기능도 있습니다. 평소에 얼굴 보고하기 어려운 대화도 가족 세줄 일기를 통해서

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차곡차곡 한 장 한 장이 모이다 보면 멋진 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사진도 넣을 수 있답니다).

요즘에는 단 한 권의 책도 제작해주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것들이 디지털인쇄 기술의 발전과 후가공 장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보급으로 너무나도 손쉽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을 똑딱 만들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이어주는 행복의 기준을 너무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상 속의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작은 성취에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오는 만족감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기준이 아닐까요?

이번 여름휴가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책으로 만든 세줄 일기를 앞에 두고 그때 그 시간, 그 기억 속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웃을 생각을 하니 절로 마음이 설렙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큰 행복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쇄물 편중 심해 특정업종 물품 구매한도 비율 제한해야!

글 | 김병수(서울인쇄조합 상무이사)

**인쇄저널은 인쇄산업분야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와 업계 차원의 논의를 촉발하고자 이번 호부터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편성하고자 한다.**

## 공공기관, 3개 법령에 걸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해야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212개 제 품, 628개 세부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쇄의 경우 현재 거의 모든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이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입 운영 중인 동 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성이 제기되는지 그 실태와 개선책을 알아본다.

2023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약 1,000여개 각급 공공기관은 표1에서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3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용역 또는 공사 구매액 중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겠다는 계획 및 그 실적을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쇄업계의 적지 않은 분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하면 중증장애인시설생산품만을 이야기하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우선구매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평가 이뤄져

한편, 각 법률 소관부처 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및 그 실적을 제출받으면 국무회의에 보고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각급 공공기관 기관 평가에 있어 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

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족한 경우 기관평가도 문제지만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비난도 크게 제기되는 만큼, 특히 공공기관 장로서는 그 실적관리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현장에서는 사실상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가 통칭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 까닭에 일부 공공기관은 목표비율 달성이 어려워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종래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이뤄지던 대규모 구매계획까지도 갑자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전환하여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예년의 사례에 따라 입찰공고만을 기다리던 일반 중소기업들은 수주경쟁에 참여도 못하고, 경영난에 봉착하게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표1)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

구분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근거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 기업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장애인이 대표이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장애인이 10명 이상 (둘 이상 품목생산의 경우 각각 5명 이상) 이고, 장애인이 상시 근로자의 70% 이상 이고, 그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품목의 경우는 30%)이고,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50%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가 30%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의 15%,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의 10% +5명 -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의 5% +20명
구매 목표 비율지정 상한	물품/용역/공사의 1%	물품/용역의 1%	물품/용역의 0.8%

## 장애인 생산시설 전국에 116,750개에 달해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위의 3개 법률 모두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일반원칙인 일반공개경쟁이 아니라 장애인생산시설 또는 그 판매기관과 직접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수의계약 방식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또는 정부에 장애인시설로 등록한 곳이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794개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609개소 그리고 장애인기업은 115,347개소 등 총 116,750개에 달한다. 다만, 장애인 생산시설 관련 제도의 복잡 다기성으로 그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시설별 생산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 파악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3개 부처가 공고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7,614억원,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7,282억원 그리고 장애인기업에서 164조원에 달한다. 장애인기업의 경우 다른 2개의 장애인생산시설과 달리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그 규모가 크다.

##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중 인쇄물이 18.5% 차지

중소인쇄업계가 제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불만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인쇄물로 편중하여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금액만 소관부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품목 등 세부 구매내역은 알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소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그 실태를 일부 추정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판매한 장애인생산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614억원이며, 이중 인쇄물(인쇄 및 광고) 판매실적은 1,415억원이다. 이는 전체의 18.6%로 시설 및 설비(배전반, 조명기구 포함) 31%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생산품을 감안할 때 인쇄물 편중 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충분함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장애인기업과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쇄물 판매액을 같은 비율로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합하면, 공공기관의 2023년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최대 4,500억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3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특성을 경험적 통계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는 인쇄업계가 최대 3조원 정도로 추산하는 공공 인쇄시장의 17%에 달하는 규모로서 중소기업에게는 큰 시장접근 제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무늬만 장애인생산품이라는 지적 많아

인쇄물 편중도 그렇지만 재하청 구조 또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바는 아니나 인쇄업계 내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인쇄물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먼저 대부분 장애인 단체나 기관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의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단체나 기관이 지정하는 장애인생산시설과 인쇄물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장애인생산시설은 자체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일반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준다고 한다. 이는 고중량의 인쇄물을 운반하고, 기계에 상·하착하며, 특히 칼라 조정 등 고정밀 인쇄기계를 신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다루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당경쟁 상태인 국내 인쇄업계의 구조상, 장애인 단체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한 인쇄물을 싼 가격에 하청주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하청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편법이 동원되는 지적도 업계에 파다하다.

## 중소인쇄업계, 장애인생산시설의 하청업체 전략 자조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는 중간 수수료를 떼어 아무리 박한 이윤이라도 때로는 이윤이 없는 경우라도 장치산업 특성상 기계를 놀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일부 중소기업들 또한 장애인생산시설로부터의 하청 수주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최근 디지털 확산에 따라 공공기관이 교육이나 홍보를 동영상 전자매체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인쇄를 대폭 축소하고 있고, 더하여 원가를 베이스로 인쇄조달단가를 책정하던 공공기관의 인쇄기준요금 제도가 2005년도에 폐지된 이후 지속되는 공공기관의 저가 조달 관행 등으로 인쇄업체의 경영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열악해지는 상황 때문이다. 개개 기업 처지에서는 전혀 이해못할 바는 아니나 이러한 사례는 결국 인쇄시장 전반을 왜곡하고 인쇄산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켜 국내 인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하겠다. 요즘 중소기업은 수익을 창출, 재투자하기는 커녕 생존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나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략하고 있다는 자조적지 않는다 지적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시행되는 국가정책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인쇄업계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지정한다 내년부터 1%에서 2%로 상향

현실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지난 2월 대표적인 장애인생산품 지원제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 상한을 2025년부터는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였다. 현재의 1%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은 데 당장 내년부터 그 지정비율 상향을 2배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대한 우선구매비율 상향이 앞으로 중소기업에게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 그 우려가 대단히 크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체적인 비율 지정 규모도 그렇지만, 장애인 지원제도 관련 3개 법률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대한 지정

비율 한도상향 입법이 나머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기업 제도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중소기업에게는 경영애로가 발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 전망이어서, 최근 적지 않은 기업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 장애인지원시책은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차원에서 수행되어야

보건복지부의 지난 4.19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 2,000명이고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1%에 달한다. 신규 등록 장애인만도 8만 6,000명에 이른다. 아울러 2024년도 장애인복지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0.1% 증가한 5조 13억원이며,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4.8%에 달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한 국가사회의 성숙도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 장애인의 소득과 자립 그리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시책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또한 장애인 지원시책은 근본적으로 복지정책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만일, 장애인 지원정책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특히 절대다수 국민의 고용과 생계소득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행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인쇄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아울러 작금 디지털화 등으로 사업을 접는 인쇄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바, 그 부작용이 정책의 취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현행 인쇄 분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개선과 재정립을 위한 정부와 업계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매물품 세부내역 제출토록 해야

현실적 여건상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준치가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당장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체의 한결같은 호소다. 먼저,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에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만 제출할 뿐 세부 구매내역은 제출할 의무가 없어, 동 정책이 업종별로 미치는 구체적 영향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제출할 때 세부 품목내역(예: 인쇄물)을 반드시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의 경우는 지난 2월 법률 개정으로 세부품목별 내역 제출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국회와 정부는 나머지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가 있도록 조속히 관계법 개정에서야 하겠다.

다음으로, 사실상 명목만 인쇄업체일 뿐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인쇄물을 제작할 여건을 갖추어 못하여 일반 중소기업체에 하청주고 수수료만 거두는 편법 사례에 대하여 정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생산시설이 수의계약 받은 공공기관 인쇄물을 카르텔화된 특정 중소기업에만 저가로 하청주는 경우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실상을 정부가 모르지 않음에도 여건

상 눈감고 있다는 인식과 불만이 중소기업에게 팽배하다. 이를 해소할 권능과 책임이 있는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시 업종별 구매비율 상향 제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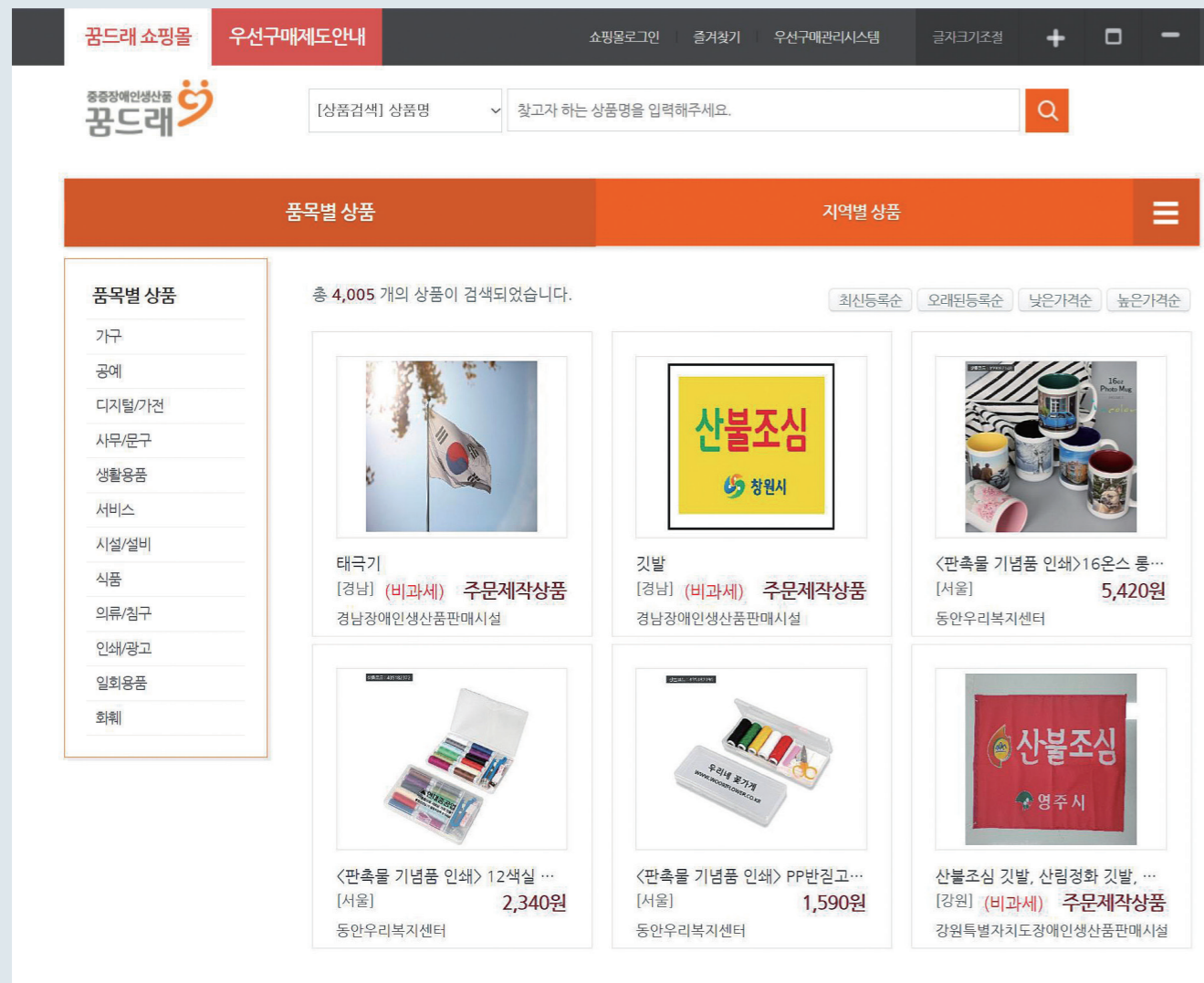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체가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대폭 축소(현행 1% → 0.5%)하거나, 인쇄를 포함하여 특정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매비율 상향 제한하라는 것이다. 기업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의 존재이고 매출이다. 작금 장애인생산시설에 사실상 의무 할당되는 5,000억원의 공공인쇄시장 중 절반이라도 일반 중소기업에 돌려주고, 건전한 경쟁과 적절한 이윤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효적 조치 없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체의 누적되고 있는 불만은 결코 해소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 인쇄업이 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가능한지 근본 재검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인쇄업종이 과연 장애인생산시설로 영위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과중한 인쇄물을 기계에 상·하차하고, 정밀한 인쇄기계를 조작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 관련 정책의 바닥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재정립 해야한다. 기실 현행 입법 초기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상당하였다는 사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법정부 차원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이 작동해야

위에서 누누이 언급한 대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부작용이 큼에도 지금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 3개 법령과 3개 부처에 제도 운용이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는 정부 부처간 영역 다툼 내지는 부처이기주의가 앞서가는 정책환경에서 정부 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정책은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 적용되는 대표적 영역이기도 하다.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의 발전과 인쇄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마련을 위해서는 법정부 차원의 정책 총괄 조정기능이 작동되어야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드레쇼핑몰(www.goods.go.kr)에서 중증장애인우선구매품목 중 인쇄/광고물의 경우 총 4005개 상품이 검색되고 있다.





## 아크릴 가공과 UV 인쇄 분야에서 성실함과 진실성에 대한 믿음으로 사업 일궈

박선영 (주)태영플러스 대표이사

인쇄조합에 가입한 지 2년도 채 안 되었지만, 조합을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본인 일보다 먼저 챙기는 (주)태영플러스 박선영 대표이사. 일례로 지난해 K-PRINT 전시회 때에는 조합원사 제품 전시 요청 시 제일 먼저 제품 샘플을 보내주면서 인쇄물들 전시할 진열대 필요하지 않냐며 먼저 물어보고 대형 진열대를 9개나 무료로 제작, 지원해준 바 있다. 또한, 조합의 쉼기대회나 토론회 등 조합원사의 단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모임에 항상 참여하

면서 묵묵히 조합에 힘을 실어줬다. 지금은 서울인쇄조합 일반인쇄부회 홍보간사로서 대외적으로 조합을 알리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살뜰히 회원사들을 챙기는 모습에서 마치 만팔, 만며느리, 혹은 큰누나처럼 든든한 지원을 해왔다. 그래서일까? 늘 선한 웃음과 배려로 자칫 경직될 수 있는 회의를 부드럽게 유도하며 서울인쇄조합의 분위기 메이커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박선영 대표. 그녀를 통해 새로운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영플러스, 그리고 새롭게 변화할 서울인쇄조합의 앞날을 가능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인터뷰는 인쇄저널 편집인인 김병수 서울인쇄조합 상무이사과 태영플러스 총무로 본사 2층 사무실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이뤄졌다.

**Q 먼저 태영플러스에 대한 간략한 회사 소개 바랍니다.**

**A** 태영플러스는 2007년 7월 설립한 이래 주로 아크릴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액자와 현판, 진열대, 단상, 데스크, POP, 인테리어, LED 조명 등을 제작해주는 곳입니다. 특히 아크릴 가공업계에서는 최초로 UV 평판 인쇄기를 도입해 수준 높은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Q 아크릴 가공과 UV 인쇄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A** 저희도 원래 UV 인쇄보다는 아크릴 가공을 주된 업무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아크릴 가공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영역을 찾다 보니 UV 인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남들보다 앞서게 된 이유도 아크릴 가공업계에서 UV 평판 인쇄기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크릴 소재 인쇄는 주로 스크린인쇄가 아니면 합지 과정을 거치는 실사 출력을 많이 했습니다. 스크린인쇄는 그래픽이나 사진 인쇄 구현이 불가능하고, 실사 출력 합지는 종이가 떨어지거나 빛바람 현상 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UV 평판 인쇄는 출력물에 잉크가 스며드는 방식이 아닌, 소재 위에 점착되어 경화되는 방식이므로 UV 자외선램프에서 발산하는 빛을 통해 UV 잉크가 순간적으로 건조가 됩니다. 따라서 건조시간이 단축되고 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내구성이 뛰어나고 변색 및 마모에도 강합니다. UV 평판 인쇄는 아크릴 외에도 포맥스, 나무, 철판 등 다양한 소재에 바로 인쇄할 수 있어 사용 가능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Q 아크릴 가공업계의 선도자 역할을 하셨군요. 주요 생산설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총무로 본사 1, 2층에 생산시설이 있으며, 경기도 광주에는 대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총무로 본사는 주로 소량 다품종 주문형 생산을, 광주 공장은 소품종 대량 양산형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공장 모두 대형 UV 프린터, 레이저 조각기, CNC, 자동 경면기, 자동 재단기 등 아크릴 인쇄 및 가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는 프라이머 헤드 분사 기술을 지원하여 유리, 금속,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에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손쉽게 인쇄가 가능한 최신 대형 UV 평판 인쇄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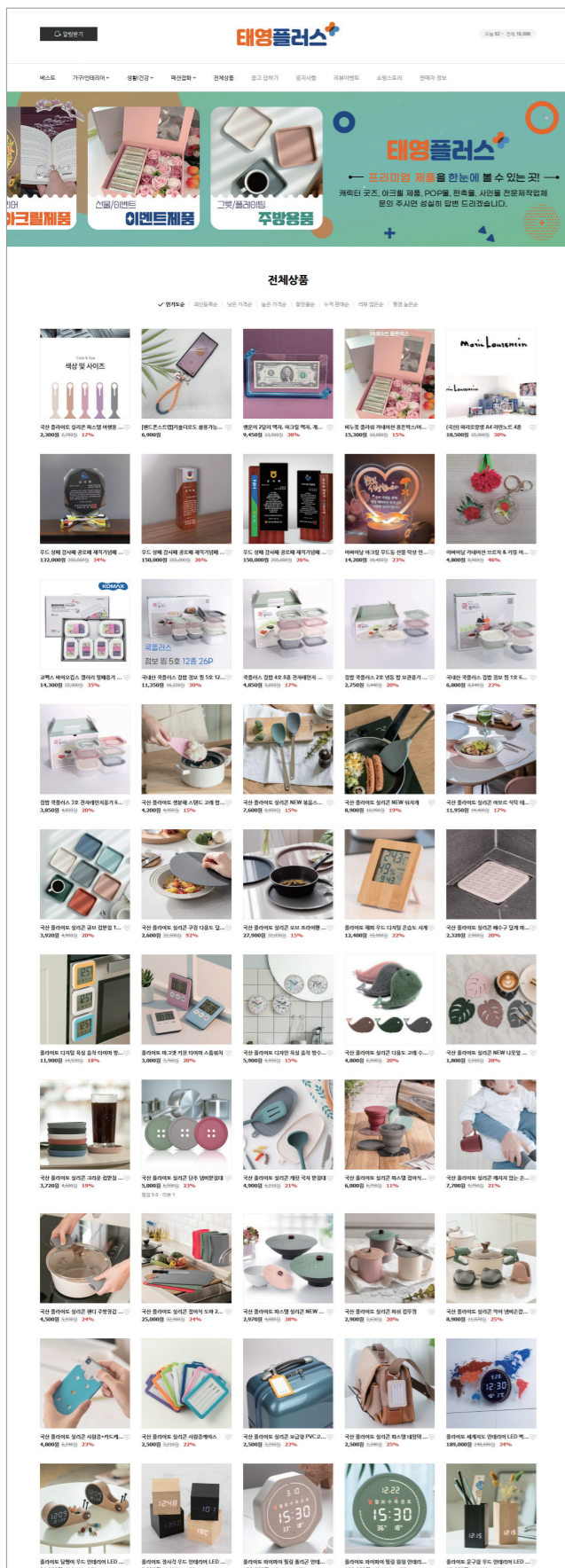
**Q 아크릴 가공 및 UV 인쇄 분야에서의 시장 성장성을 알고 싶습니다.**

**A** 수요처가 다양해지고 요구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체 같은 곳에서 단순한 형태의 단품을 많이 주문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뭔가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약 진열대도 실제 알약을 진열 케이스에 넣어 볼 수 있도록 가공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약을 넣어보고 형태가 제대로 보여지는지 두께나 폭 등 수차례 수정과정을 거쳐 완성을 시키곤 합니다. 여기에 UV 인쇄를 통해 화려한 인쇄까지 더해지죠. 과거와 달리 고객분들도 전문가 수준의 사전지식을 쌓고 오시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양해지다 보니 가짓수는 매우 많아졌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Q 고객분들이 굉장히 고도화, 다양화되었군요. 그런 의미에서 개성 있는 니만의 캐릭터 운동 같은 걸 펼친다면 시장확대에 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최근에는 업체가 아닌 일반분들이 개인화된 캐릭터나 연예인 사진을 아크릴 위에 인쇄, 레이저 커팅을 해서 세워놓는 형태로 주문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금액면이나 시간상으로 볼 때 손해이지만 고객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제로 표현해드린다는 것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과거에는 고객분들이 직접 오셔서 보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온라인이 워낙 활발해져서 다들 사전 조사를 하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디자인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충 사이즈만 말씀하고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정말 꼼꼼히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구하는 부분에 '이거는 이래서 해서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아크릴 가공이나 인쇄를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인 도안을 갖고 오시면 사실 그걸 100%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소재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태영플러스에서 운용 중인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typlus>



아크릴가공과 UV인쇄를 접목한 태영플러스 생산제품

있고 제작공법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결코 쉽지 않은 분야에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체크해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기까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A** 제가 원래는 검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배우 나한 일씨가 총재로 있었던 해동검도에서 몇 안 되는 여자 사범으로 활동하다가 체육관까지 오픈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아크릴 가업업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태영아크릴 대표로, 저는 태영플러스 대표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람도 많이 느끼지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아크릴 가공은 숙련된 기술력이 필요하고 무거운 재료들을 가공기계를 통해 다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거의 없었고, 간혹 있는 경우도 청소나 경리업무쪽이었습니다. 또 기존 아크릴 기술자 대부분이 힘들게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쉽사리 노하우를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가 이 업계에 입문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제품들

부터 레이저 조각기, CNC(자동화 공작기계), 디지털 UV 프린터기를 직접 조작하고 운용했습니다.

**Q** 그렇다면 힘든 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2016년도에 바로 이곳 총무로 본사 아래 1층 공장에서 불이 나서 전소가 되는 바람에 완전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화재가 안 났더라면 지금은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Q** 제가 볼 때는 검도 사범까지 하셨던 분이랑 강한 멘탈로 재기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 어찌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 났을 당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익혔던 검도가 정신수양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검도는 진심으로 어떤 사물을 베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잡념을 베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된 후 한참 지나 눈물이 흐르더군요.

**Q** 마지막으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K-PRINT 2024 조합부스 통해 출품된 제품들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진실성과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객에게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믿고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실하게 임했던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박선영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크릴 가공과 UV 인쇄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와 리더십,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 서울인쇄조합의 미래가 박선영 대표와 같은 조합원들의 손에서 어떻게 빛어질지 기대가 된다.

(주)태영플러스

본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 41-1 (1,2층)  
Tel. 02-2266-7704 / Fax. 02-2266-7723



공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88



미래를 프린팅하는 새로운 인쇄기술!

# K-PRINT 2024, 8월 21일 킨텍스에서 4일간 개최

지속 가능한 인쇄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국내 최대 인쇄인의 축 제인 K-PRINT가 오는 2024년 8월 21일(수)부터 24일(토)까지 4일간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총 200개사 850 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 새로운 융복합 기술과 솔루션 선보여

한국이앤엑스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K-PRINT 2024는 국내 유일의 인쇄 관련 산업 통합 전시회로서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를 비롯하여 한국레이블전시회(K-Label), 한국패키징전시회(K-Pack), 한국디지털인쇄·솔루

션전시회(K-Digital Print), 한국텍스타일전시회(K-Textile), 한국사인·광고전시회(K-Sign&AD)를 통합하여 개최한다.

이번 K-PRINT 2024는 급변하는 인쇄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쇄, 패키징, 라벨, 텍스타일, 사인 산업의 새로운 융복합 기술과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인쇄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인쇄기술과 ESG 흐름의 지속 가능한 패키징 & 라벨 솔루션, 패키징 디스플레이 솔루션, 커스텀 의류 인쇄를 위한 전사 프린터 및 필름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확대되는 옥외 광고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프린팅 관련 기업이 다수 참가하여 인쇄산업의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활용되는지 전시장 현장에

## K-PRINT 2024.08.21



서 라이브 데모를 시연한다.

아울러 K-PRINT 사무국은 실질적인 구매 바이어 유치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 활동은 물론, 지역 인쇄 조합 및 단체 등 지역 바이어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에서 KINTEX 전시장을 왕복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ECO-PRINT, 각양각색의 친환경 제품 선보여

글로벌 ESG 트렌드가 반영된 지속가능한 인쇄산업의 친환경 제품 및 기술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지속가능한 인쇄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참여업체 부스에 'ECO-PRINT' 배지를 표기하여 관련 전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재생 불가능한 플라스틱 소재의 봉투를 대신할 방수기능성 종이봉투, Vegan 친환경 인증 열전사 필름, 무라벨 직인쇄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이저 프린터 등도 소개한다.

### 'K-PRINT 2024' 기념 정부포상·이사장상·특별공로상 시상

본 전시회에서는 국내 인쇄산업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포상(장관상), 한국인쇄진흥재단 이사장상, 특별공로상을 처음으로 수여한다.

### 브랜드 디자인 트렌드 및 글로벌 인쇄산업 동향을 볼 수 있는 세미나 개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시 기간 중 KINTEX 제2전시장 3층 세미나장에서는 디자이너와 브랜드,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자인 사례와 콘텐츠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세미나와 글로벌 인쇄산업 동향과 국내 인쇄산업 표준 로드맵을 볼 수 있는 ISO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세미나가 동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K-PRINT 홈페이지에서 8월 20일(화)까지 전시회 사전등록을 마치면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세한 안내는 전시회 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K-PRINT 2024 사무국 전화 (02)551-0102 또는 홈페이지(www.kprint.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 서울인쇄센터 부스(No. G602) 운영

한편 서울인쇄조합이 운영기관인 서울인쇄센터가 이번 전시회에 부스(No. G602)를 마련하고 센터홍보 및 인쇄업체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 홍보하여 새로운 판로확대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ISO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 주관 : 월간인쇄계, 강원대학교, 한국이앤엑스

8월 21일 308호

대주제 : 글로벌 인쇄산업 동향과 국내 인쇄 산업 표준 로드맵

13:30~14:20	강원대학교 정경모 간사 ISO TC130 분야 표준화 활동과 국내 인쇄산업 표준화 중장기 방향	
14:30~15:20	일본프린팅아카데미 조우현 교장 인쇄 품질의 QC & QA	
15:30~16: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동호 수석 패키징 트렌드 및 패키징 친환경성 분석	

## KEY PRINT 세미나

• 주관 : 한국이앤엑스

8월 22일 308호

대주제 : 지속가능한 인쇄산업을 위한 다각적 분석

13:30~14:00	위피엔피 정병환 이사 DX 핵심기술 기반의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XaaS 서비스	
14:10~15:00	달리 최동희 이사 (주)달리에서 제안하는 잉크젯 미래 제품과 친환경 소재	
15:10~16:00	HP.Inc. 이현승 차장 HP 인디고가 제시하는 디지털 인쇄의 미래	

## 디자인 세미나

• 주관 : 월간디자인하우스, 한국이앤엑스

8월 22일 302호

13:10~14:00	named. brand design co. 윤영노 대표 디자이너가 갖춰야할 태도와 마인드	
14:10~15:00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영하 겸임교수 다학제적 디자이너의 접근법	
15:10~16:00	모스그래픽 석윤이 대표 오브제가 되는 디자인	
16:10~17:00	허스키폭스 신용혁 실장(수석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인 실무의 보편성과 특수성	

※ 세미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미나 일정은 진행 상황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K-PR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공개된 한국후지필름BI CHX(Customer Happy Experience/고객행복경험) 라이브 오피스 커칭식 모습

이벤트

## 한국후지필름BI, 창립 50주년 고객행복경험(CHX)으로 새로운 50년 열어갈 것 Customer Happy Experience

### 고객행복경험 통한 새로운 50년 위한 비전 선포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대표 하토가이 준, 이하 한국후지필름BI)이 지난 7월 10일(수)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후지필름BI CHX 라이브 오피스에서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후지필름BI가 지난 50년간 한국 사무환경 혁신을 주도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전환(DX) 시대를 선도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후지필름BI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본사 후지필름BI의 하마 나오키 대표이사 사장과 야마다 류이치 디바이스테크놀로지사업본부

부분부장, 후지필름BI 동아시아 나카무라 타츠야 영업총괄이 방한하였으며, 한국후지필름BI 하토가이 준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자사의 솔루션을 소개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한국후지필름BI CHX 라이브 오피스는 한국후지필름BI의 최신 DX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최근 출시한 협업 플랫폼 'FUJIFILM IWpro'를 포함한 다양한 DX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으며, 방문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주)

와 협업해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내 임직원이 DX를 통한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DX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고객맞춤형 디지털전환 솔루션 제공할 터

간담회는 한국후지필름BI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후지필름BI 하마 나오키 대표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후지필름BI 하마 나오키 대표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며 “한국은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솔루션·서비스 사업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지필름 그룹의 목적(Purpose)을 소개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성공과 행복의 경험을 선사하고 ‘미소’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후지필름BI 하토가이 준 대표는 새로운 50년을 위한 미래 비전으로 ‘CHX(Customer Happy Experience, 고객행복경험)’를 제시했다. CHX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디지털화를 넘어, 고객 제품과 서비스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고객에게 더 많은 미소를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한국후지필름BI는 자사 핵심 고객 타겟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현재 국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DX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후지필름BI는 전국에 분포된 복합기·프린터 서비스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고객맞춤형 DX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후지필름BI 우혁진 마케팅부장의 솔루션 설명이 이어졌다. CHX 라이브 오피스 소개를 통해 공간에 적용된 한국후지필름BI의 주요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올인원 협업 플랫폼 'FUJIFILM IWpro'와 기업의 IT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IT 엑스퍼트 서비스 (ITESS)'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돕는 한국후지필름BI의 서비스 역량을 강조했다.

한국후지필름BI 하토가이 준 대표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50년간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한국후지필름BI가 이제는 DX 시대 고객의 혁신과 가치 창출을 리드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고객과 협력사는 물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후지필름BI의 새로운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후지필름BI는 1974년 설립된 이래 국내 최초 건식 보통용 지 복사기 생산을 시작으로 복사기 렌탈 시스템, 디지털 복합기, 컬러 프린터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국내 기업의 업무 혁신



좌측부터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하마 나오키 본사 대표이사 사장, 우혁진 한국후지필름BI 마케팅부장

을 주도해 왔다. 특히 아날로그 복합기의 디지털화와 컬러 출력의 대중화를 통해 기업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21년 사명 변경과 함께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기업’으로 새 출발한 한국후지필름BI는 DX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국내 기업의 DX를 선도하고 있다.

### 맞춤형 디지털전환(DX) 오픈 세미나 개최

한편, 후지필름BI는 첫 공개된 CHX 라이브! (CHX Live!)에서 매주 수요일 'DX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워크플로 △기업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을 지원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등 3가지 주요 영역에 따라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솔루션 투어가 진행된다. 솔루션 투어를 통해 협업 솔루션, IT 운영관리 서비스, 보안솔루션 등 한국후지필름BI의 주요 DX 솔루션을 체험해보고 이 외에도 업무 자동화, 화상 회의 솔루션, LED 등 다양한 최신 트렌드의 솔루션들도 살펴볼 수 있다. 솔루션 투어 후에는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맞춤형 솔루션 제안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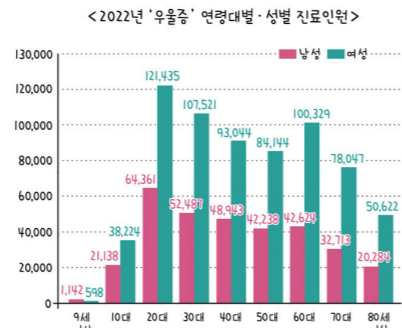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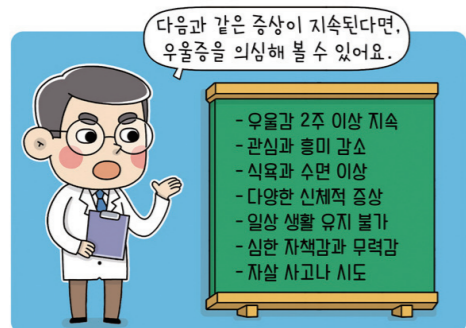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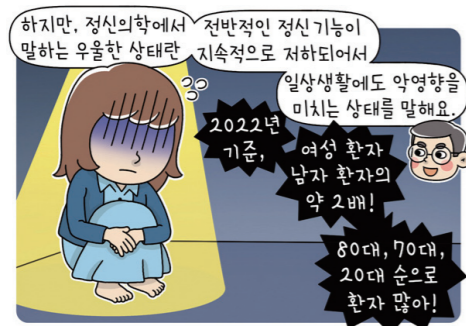
DX 오픈 세미나 참가신청 바로가기

한국후지필름BI 'DX 오픈 세미나'는 DX 솔루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관련 정보 및 참가 신청 방법은 한국후지필름B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건강iN의 건강 이야기!

## 우울증



<출처-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 매출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러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 ① 미수금에 관한 것
-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

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②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③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④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함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억 원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출처 | 국세청·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



###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인쇄기준요금제도 다시 시행 요구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지난 6월 19일(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30건의 조달 관련 현장애로가 제출했다. 특히 박래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05년 인쇄기준요금제도를 인쇄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실화된 기준요금으로 다시 시행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인쇄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4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난 6월 20일(목) 상암동 중소기업 DMCT타워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4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가경제 발전과 수출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공로로 86명이 산업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재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 서울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 전달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 15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1개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마련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1억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협동조합 외에도 금융기관, 대기업 등도 출연에 동참해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이 참석했다.

### 서울인쇄조합 청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논의 가져



서울인쇄조합 청년위원회(위원장 이홍일)가 지난 7월 25일(목) 서울인쇄센터 1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26일 1차 회의와 관련하여 사전준비회의를 통해 진행사항 및 논의내용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CEO들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 인쇄산업과 인쇄기업 경영의 혁신 선도를 위해 지난 6월 21일 경영자세미나에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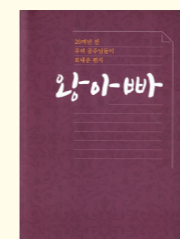
### 서울인쇄조합, 공동사업 담당자 및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서울인쇄조합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공동사업 담당자 및 공동안전관리자를 각 1명씩 채용했다. 먼저 공동사업 담당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 시부터 1년간 월 인건비 70% 이내 지원받게 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소규모 기업이 단독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다수기업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공동안전관리자를 두되, 기업의 부담 없이 정부와 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공동안전관리 1인당 정부는 운영비의 80% 나머지 20%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인쇄조합은 이번 공동사업 담당자 및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통한 인력보강으로 조합의 협업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소규모 인쇄업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 소녀 가장들이 보내준 편지 모음집 발간한 안태복 (주)디앤비애드 대표이사



1990년 중반부터 국내는 물론 월드비전을 통해 몽골, 방글라데시 등에 도움의 손길을 전한 서울인쇄조합 회원사인 (주)디앤비애드 안태복 대표이사가 그동안 도움을 준 소녀 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20여 년 전 우리 공주님들이 보내준 편지, 왕아빠'를 발간했다. 왕아빠 편지 모음집에는 안태복 대표가 그

동안 펼쳐온 다양한 봉사활동을 담은 화보집을 포함해 200페이지 분량의 편지들을 소중하게 담아내고 있다. 안태복 대표는 발간사에서 "나는 무슨 물건이든 오래 보관 못 하는 스타일인데다 옛 여자 친구들의 편지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공주님들의 편지는 20여 년을 보관했다"며 "지금도 문득 생각나는 얼굴들, 소이, 은희, 은경, 유정, 지영, 지혜, 상희, 보라, 미자, 아린은 꼭 한번은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어언 40이 가까운 나이로 길에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공주님들의 고등학생 시절의 그 풋풋한 얼굴은 또렷이 기억이 난다"며 "어디서 어떻게 살던 만족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한다"고 했다. 안태복 대표는 2009년 딸 세희양의 결혼식 때 축의금 전액 5210만원을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에 기부, 아프리카의 가나 크라치 웨스트 지역에 우물 13개를 뚫는 데 사용함으로써 인쇄업계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 타라TPS, 우즈베키스탄 국정교과서 제작



타라TPS는 지난 7월 2일(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국정 교과서 발행을 담당하는 국영인쇄사(O'ZBEKISTON) NASHRIYOT-MATBAA (JODIY UYI Mchj)와 인쇄 기술 교류 및 해외 생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초등

및 중등 교육용 교과서 제작을 위한 국정 교과서 발행 사업은 올해 약 1,000만 달러(USD) 규모의 수주가 예상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로 우즈베크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만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하여 러시아어, 카자흐어 등 소수 언어로 다

수의 교과서를 활용 중이다. 타라TPS는 이를 위한 다양한 언어와 학년, 과목별 교과서를 제작하게 된다.

타라TPS는 그동안 고품질의 인쇄 기술을 기반으로 대량 인쇄와 수출을 위한 물류 관리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국가의 교과서를

제작, 수출해왔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는 교과서 인쇄 품질 유지와 비용 효율을 위하여 해외 제작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이미 타라TPS를 통해 교과서를 제작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쇄물 납품에서 인쇄 기술 교류로 협력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고품질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타라TPS 강호연 대표이사는 “교과서는 교육의 중요한 핵심 자원이다. 타라TPS가 보유한 고품질 인쇄 기술, 국제 배송 체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교과서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교과서 제작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육, 문화 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외사업부 개설과 함께 해외 시장 확대 나서



투데이아트 부스 모습. 다이아폰인쇄 및 도에이 등 일본 유수의 콘텐츠 기업과 활발한 미팅이 이뤄졌다.

###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 기술과 트렌드를 한자리에

(주)투데이아트(회장 박장선)가 지난 7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콘텐츠 도쿄(CONTENT TOKYO) 2024에 참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콘텐츠 도쿄 2024는 영상과 광고, 캐릭터, 일러스트, 종이 매체까지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 기술과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종합 전시회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 843개사의 관련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으며, 4만 6천여 명이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 일본과 미국, 중동 등 다양한 지역 홍보

투데이아트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사 부스를 통해 K-POP 관련 굿즈 인쇄물과 패키지를 전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POP 관련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는 파주인쇄사업부 1, 2공장의 인쇄 시스템을 소개했으며 다이이폰인쇄와 도에이 등 일본 유수의 인쇄 및 콘텐츠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장선 회장은 이번 전시 성과에 대해 “콘텐츠 도쿄 2024는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과 영상, 종이 매체까지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타 분야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전시 플랫폼으로, 투데이아트의 수준 높은 인쇄 품질을 일본 인쇄와 콘텐츠 분야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별도의 해외사업부를 신설, 앞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투데이아트 공장 현장을 둘러본 일본 인쇄업계 관계자가 ‘인쇄업계의 테마파크’라고 극찬할 만큼,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자동화 인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파주인쇄사업부 1, 2공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과 미국, 중동 등 다양한 지역의 해외 바이어들에게 홍보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인쇄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기사제공 월간인쇄계)



인쇄저널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서울인쇄센터



서울인쇄센터 예약



기술창작실 예약

###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항
(주)고려이앤피	강남구 삼성로 427, 2층 (대치동, 삼송빌딩)	강남구 삼성로 412, 1층 (대치동, 골든포우빌딩)	주소
(주)서울프로아트	중구 퇴계로 212-11, 1층 (필동2가, 아이피빌딩)	중구 필동로 12, 1층 B1층 (필동2가, 동영빌딩)	주소

**결혼** ● 애드월드 정동채 대표 장남 보환군이 7월 13일 파티움하우스 수원 2층 그레이스켈리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고** ● (주)창문티피에스 김기실 대표 부친(故 김용환 회장)께서 지난 7월 28일 별세했습니다.

### 조합원사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쇄저널은 항상 조합원사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기고’와 ‘업체탐방’, ‘홍보기사’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서울인쇄조합 사업홍보팀으로 연락주세요.  
Tel. 02-333-8631 | E-mail. cmyk1813@gamil.com



# 더 높은 곳에서 2층버스 시티투어



스마트한 부산 여행  
부산 시티투어버스

부산의 시티투어버스는 1일 이용권 한 장으로 ‘레드라인’, ‘그린라인’, ‘블루라인’, ‘옐로라인’까지 총 4가지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2층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은 부산역과 해운대를 왕복하는 ‘레드라인’과 용궁사와 기장시장을 왕복하는 ‘옐로라인’이다. ‘레드라인’은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인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영화의 전당과 광안대교 등 총 14곳의 정류장을 지나친다. ‘옐로라인’은 전통시장의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궁사에서 출발해 멸치테마광장과 기흥시장 등을 들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다. 버스 중앙 모니터를 통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관광안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4개 국어한/영/일/중로 승강장 하차 안내 방송이 나온다. ‘BUT 부산시티투어’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시티투어를 즐길 수 있다. 4개 국어로 제작된 여행안내를 들을 수 있어 외국인 여행객들도 부산의 시티투어버스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버스 2층에서는 무인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패드를 통해 코스별로 자세한 관광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티켓은 현장에서 버스기사에게 직접 구매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불가능하다.

www.citytourbusan.com



해외 유명 도시를 누비는 2층 투어버스를 보면 왠지 여행이 더욱 행복해 보였다. 도시는 더욱 여행지스러웠고, 한참은 높아진 눈높이로 도시의 풍경을 음미해보고 싶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2층에 앉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버스를 타고 각 도시의 명소들을 둘러보는 가장 쉬운 방법, 시티투어. 4월의 시작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의 시티투어버스 역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오래 전부터 각 도시마다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해왔지만, 대부분 일반 관광버스와 동일한 버스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2층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2층버스. 외국 여행객들보다 국내 여행객들이 더 좋아하는 대한민국 일일 여행법을 소개한다.

- EDITOR 김관수
- PHOTOGRAPHER 부산 시티투어, 울산 시티투어, 대구 시티투어, 여수 시티투어, 서울 스카이버스, 서울 타이거버스
- Provided by 여행매거진 GoOn
- 자료제공 (주)명문기획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을 한눈에  
울산 시티투어버스

울산 시티투어버스는 울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 유명 여행지를 한데 묶어 코스별로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티투어 코스는 크게 순환형과 테마형 코스로 나누어지며 각각 운행하는 버스가 다르다. 순환형 코스에 속하는 ‘대왕암 코스’와 ‘태화강 코스’는 오픈탑 2층버스 2대와 1층버스 3대가 함께 운행하고, 테마형 코스에 속하는 ‘아름다운 달빛 여행 코스’는 오픈탑 2층버스, ‘역사탐방 코스’, ‘해안탐방 코스’는 일반 2층버스로 운행한다. 순환형 코스 중 ‘대왕암 코스’는 울산의 키워드인 바다와 고래, 울산대교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코스이고, ‘태화강 코스’에서는 울산의 젓줄이라 불리는 태화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원과 울산의 문화, 예술 그리고 낭만을 느낄 수 있다. 토요일에는 해설사가 함께 탑승해 여행지마다 이야기를 들려준다. 테마형 코스 중 ‘아름다운 달빛 여행 코스’는 환하게 열린 오픈탑 2층버스를 타고 울산 12경 중 하나인 울산의 야경을 감상하는 코스다. 다만 5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운행하는 ‘역사탐방 코스’는 대곡박물관과 암각화박물관, 반구대를 둘러 볼 수 있고, 외고산 용기마을, 간절곶 등을 지나치는 ‘해안탐방 코스’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탑승 가능하다.

www.ulsancitytour.co.kr



현대에서 과거로의 여행  
대구 시티투어버스

대구에서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 여행이 가능하다. 2층버스에 올라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와 먹거리로 유명한 시장 등 대구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다. 버스는 평화시장, 동성로,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과 수성못 등 대구 여행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명소 14곳을 지나간다. 투어버스의 배차 시간은 40분 간격이니,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 주변을 충분히 둘러본 후 다음 버스를 이용하여 다시 여행을 이어가면 된다.

티켓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며, 당일 고속버스 혹은 열차승차권, 코레일 패스권, 당일 도시철도 이용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티켓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10인 이상의 단체 승객은 2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승차권을 1회 구매하면 시티투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특히 자유여행객들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대구를 여행할 수 있다.

daegucitytour.dgsisul.or.kr





.....  
여수의 낮 그리고 밤  
여수 낭만 2층버스

여수의 낮과 밤의 아름다움을 쉽고 빠르게 감상할 수 있는 낭만 2층버스가 여수 여행을 함께 한다. 버스 2층에 앉아 여수가 품고 있는 다양한 풍경을 둘러보는 여수 시티투어버스는 2층 버스가 운행하는 주간코스와 야간코스로 나뉜다. 주간코스는 하루에 7회 운행하며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아쿠아플라넷, 케이블카주차타워와 오동도 등 여수의 주요 여행지 9곳을 경유한 뒤 다시 여수엑스포역으로 돌아 오는 코스이다. 티켓은 현장에서 버스 기사에게 구매할 수 있으며, 야간코스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결제를 통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루에 단 한 번만 운행하는 야간 시티투어버스는 저녁 7시 30분에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하며, 버스의 2층 좌석에만 탑승 가능하다. 버스는 돌산공원과 교통시장, 이순신광장 등을 들리며 여수의 아름다운 밤을 탑승객들에게 선사한다. 매월 첫째, 세번째 월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할 것.

tour.yeosu.go.kr



.....  
4색 매력 도심여행  
서울 스카이버스

서울 스카이버스는 105분 동안 관광과 쇼핑, 음식과 문화 등 4가지 매력을 탑승객들에게 선보인다. 그중 2층버스가 운행하는 코스는 '전통문화코스'와 '하이라이트코스'. '전통문화코스'는 서울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과 덕수궁, 경복궁과 같은 고궁은 물론 인사동과 서울 풍물시장, 명동과 DDP 등 서울을 대표하는 여행 명소에 정차한다. '하이라이트 코스'는 서울 숲, 독섬유원지와 강남 롯데월드타워 등 서울의 도심 풍경을 한데 모은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코스는 환승티켓만 구매하면 DDP에서 서로 환승도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에 서울의 역사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모두 만날 수 있다.

티켓은 매표소 및 버스에서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티켓으로 하루 종일 각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다. 버스 투어 중에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 인근을 여행한 후 다른 버스에 탑승해 다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평일에는 30~40분, 주말에는 25~30분 간격으로 추가 운행한다. 목적지에 정차할 때마다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여행객들의 여행 편의에도 신경 쓰고 있다.

www.seoulrolley.co.kr

# 인쇄, 미래를 창조하다

## 제15회 서울인쇄대상 공모

서울인쇄센터에서는 인쇄기술의 발전과 우수인쇄물 발굴을 위한 제1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에 출품할 각 분야의 인쇄물을 공모합니다.

### 공모분야 : 4개 부문 4개분야

#### 1 기업인 부문

- ① 책자인쇄분야 : 일반서적, 잡지, 연감/백과사전, 박엽지인쇄물, 디지털인쇄물, 기타 책자인쇄물
- ② 홍보인쇄분야 : 리플릿/카탈로그/브로슈어, 캘린더, 우편엽서/청첩장/카드, 포스터, 디지털 홍보물, 기타 홍보인쇄물
- ③ 패키징인쇄분야 : 라벨, 스티커 및 박스
- ④ 특수인쇄분야 : 금박/홀로그램 등 특수한 소재 인쇄물, 후가공 등 특수한 기술을 적용한 인쇄물(사인 앤 디스플레이)

#### 2 시민 부문 : 분야 제한 없음

#### 3 학생 부문 : 분야 제한 없음

#### 4 특별 부문 : 해외 출품작, K-POP 인쇄물 등

### 응모자격 및 접수방법

#### ● 응모자격

- 관련 업계를 포함해 응모에 관심 있는 모든 자(회사/개인 모두 출품 가능)
- 1인당 출품작 제한 없음(1작품당 2점 제출). 단, 국내외 유사행사에서의 입상한 작품은 출품 불가
-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초상권, 저작권 명의의 도용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음

#### ● 접수방법 : 2024년 8월 23일(금) 18:00 마감 (23일 소인 유효)

- 참가비 없음
- 우편(방문) 접수 : (우) 04560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센터
- 이메일 접수 : [printingaward@seoulprinting.com](mailto:printingaward@seoulprinting.com) (www.seoulprinting.com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연락처 : 070-4242-9351, 070-4242-9350

### 시상식 일시 및 장소, 시상내역

-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청계광장 행사장 내
- 시상내역

- 서울특별시장상 : 대상 1명, 금상 5명, 은상 5명, 동상 5명, 특별상 5명, 입선 10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 5명
- 특별상(벤더사 대표, 후원업체 대표상 등) : 5명
-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상 등 인쇄 관련 단체상 : 5명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인쇄센터

Print the future



# 충무로 최고의 입지조건

상가 · 사무실 · 인쇄업 등 다양한 용도 가능



충무로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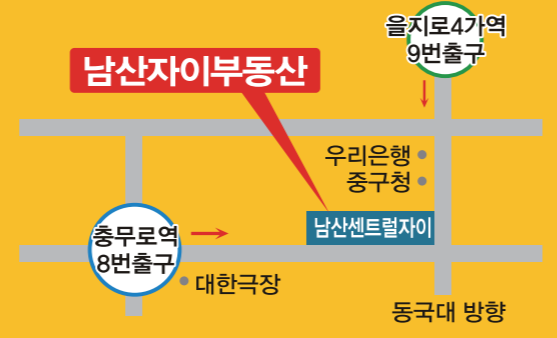
을지로 4가역

남산자이부동산

충무로역(3.4호선) 도보 3분 / 을지로4가역(2.5호선)도보 5분

구분	1층 상가 사무실	B1 사무실 인쇄업	B1 사무실 인쇄업	B1 사무실 인쇄업	B1 사무실 인쇄업	B1 공유오피스 인쇄업	B1 사무실 인쇄업
호실	108호	비07호	비08호	비09호	비10호	비11호	비12호
전용면적	51㎡(15py)	86㎡(26py)	102㎡(31py)	114㎡(34py)	74㎡(22py)	383㎡(116py)	79㎡(24py)
매각금액	7.3억	3.8억	4.5억	5억	3.2억	16.5억	3.6억

**남산자이부동산중개법인**  
**02-2272-6791**  
**010-3872-6791**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5, 109호(충무로4가)



- 가죽친화 우수기업
- MAINBiz 경영혁신명 중소기업
- km3 ISO 9001
- km3 ISO 14001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 조달청
- FSC
-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창작디자인연구소
- 2019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디지털 전환 (DX) 으로

기업에게 경계 없는 업무 환경을  
파트너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세상에 더 많은 미소를 전합니다.